

농민신문 창간 40주년 축하 메시지

농민신문 창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임직원과 농업인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릿고개가 험겁던 1960년대 초에 출범한 농민신문은 그동안 우리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습니다. 농업인들의 지위향상과 영농정보 제공, 우수농산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금 개방문제를 비롯해서 농업인들의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 가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최선의 해법은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지난해 말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투입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대책 하나하나가 반드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농업을 회생시키고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신문의 역할은 크고도 무겁습니다. 정부와 농민,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

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기 바랍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간 40주년을 축하하며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농업인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